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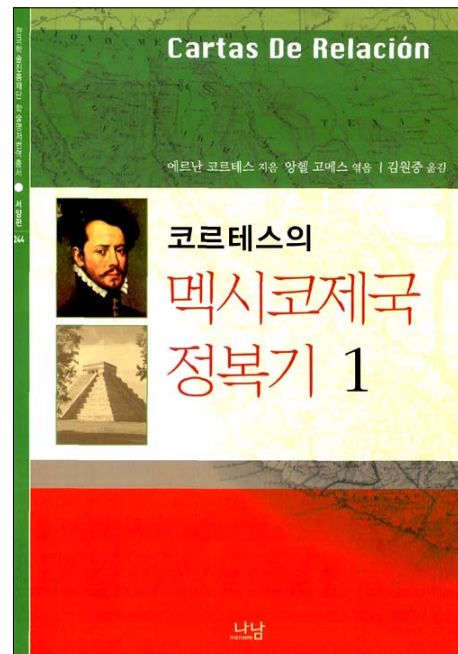


■ 정복하는 자아의 탄생:

『코르테스의 멕시코 제국 정복기』 (나남, 2009)

이 성 형

멕시코를 정복한 에르난 코르테스 (Hernán Cortés)의 서신집이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콜럼버스의 『항해록』이 신대륙의 ‘발견자’이자 창조자로서 신대륙을 인상주의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코르테스의 서신은 그야말로 서구 정복자의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을 속속들이 보여준다. 고려대 송상기 교수에 의해 번역된 정복대장 카베사 데 바카(Cabeza de Vaca)의 기록인 『조난일기: 서구와 인디언 문명의 충격적 만남』(고려대 출판부, 2004)에 뒤이어 번역된 이 책은 16세기 기록문학의 전범이자, 백



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와 서구의 충돌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다섯 편의 서신은 유카탄 반도에서 멕시코시티에 이르는 일련의 탐사와 정복 전쟁들, 그리고 멕시코 재건사업과 온두라스 탐사까지 연결된 길고 긴 여정에 대한 영웅담이다. 영웅은 온갖 역경을 견디면서 기필코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열여섯 필의 군마와 기백명의 병사로 시작된 정복사업은 2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20만 명의 대도시 테노치티틀란을 함락시키는 클라이맥스로 종결된다. 제1권의 책은 마치 『일리아드』를 읽는 느낌이고, 제2권은 오디세이아의 귀향 이야기처럼 고생스럽고 목숨을 건 탐사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무엇보다 코르테스는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단어의 선택, 문장의 짜임새, 극적인 전개과정, 때때로 기민하게 자신을 홍보하는 카피라이터로서 능력은 대단하다고 할 정도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꾼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는 축소, 조작, 은폐, 기만, 확대, 강조의 천재이다. 자신의 만행은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담대함과 지략이 승리의 원천이라고 교묘하게 강조한다. 무기체제의 우위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군마와 보병, 곤봉과 칼, 대포와 화살의 압도적 격차는 그냥 지나친다. 석궁과 조총, 기병과 대포가 없는 정복전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당시 작은 도시국가들의 연맹체로 통합력이 매우 허약했던 아스텍 제국의 난공불락성은 강조하되, 쉽게 동맹세력을 만들 수 있었던 외교적 환경이 준 유리한 점은 축소한다. 스페인의 동맹도시들이 제공한 사병 숫자가 마지막 결전에서 15만 명에 이르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의 활약상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과소하다. 세 번째 보고서에서 이들이 테노치티틀란을 응징하는 과정을 지켜보고는 “지독하고 변태적으로 잔인한” 야만인으로 묘사한다. 동맹군도 지독한 야만인으로 폄하되고 있다.

불필요했던 출몰라의 학살극도 자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으로 포장하고, 잔혹하고 초토화 시키는 정복전쟁도 모두 군주 폐하의 권위를 높이고 성스런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한다. 코르테스는 아스텍 제국과 이들의 물질문명에 대해 찬탄을 거듭하지만, 그것을 이해의 대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전리품의 가치로서 판단할 뿐이다. 모든 것은 전리품인 금은의 양으로 계측된다. 서신 전체에는 타 문명에 대한 완벽한 물이해가 지배한다. 그는 소통을 거부하며, 자신의 패러다임 속에서 타자를 바라본다. 나는 정복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복하는 자아의 영웅담은 결국 서구적 소통의 일방주의를 재확인한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판화가 테오도르 갈레의 판화 ‘아메리쿠스가 아메리카를 재발견하다’를 분석한 미셸 드 세르토의 표현을 빌리면, 코르테스의 텍스트도 ‘정복하는 글쓰기’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정복자는 타자의 몸을 기록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역사를 추적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노력과 환상을 투사하여 역사화된 몸뚱이-문장(紋章)을 만든다. 권력담론으로 몸을 식민화한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정복하는 글쓰기(writing that conquers)이다. 이런 글쓰기는 신세계를 마치 서구의 욕망이 기록될 텅 빈, ‘야만적’ 페이지처럼 이용한다.”¹⁾

두 번째로 이 영웅담은 자신의 정복 사업을 법적으로 옹호해야만 하는 변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코르테스는 자신의 상관인 쿠바 총독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출항했기에, 사실상의 항명죄를 지었고, 이 행위를 합리화해야 했다. 쿠바 총독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군주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군주로부터 새로운 정복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카피툴라시온(capitulación)이란 문서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베

1) 이성형, 2003.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78 페이지에서 재인용.



디에고 리베라, <식민화, 에르난 코르테스의 베라크루스 도착>(멕시코 '팔라시오 나시오날' 벽화)

라크루스란 도시를 건설하고, 이 시의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군사적,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수장으로 취임한다. 다섯 개의 보고서처럼 정복 초기의 기록문학이 변론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정복과 관련된 법적권리의 옹호와 관련되어 있다.

다섯 편의 편지는 놀랄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를 지니면서 정복자 코르테스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옹호한다. 그는 법률을 공부한 적이 있는 하급귀족이었다. 편지 곳곳에서 당대 스페인의 법률만능주의를 읽을 수 있다. 정복 전쟁을 '정의의 전쟁 *guerra justa; just war*'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선전포고문인 '레

케리미엔토 Requerimiento'를 전쟁 직전에 낭독하는 과정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이 문서는 전쟁의 개전 사유가 군주의 시혜와 성스런 신앙을 거부한 상대방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레케리미엔토의 선언도 코르테스는 곳곳에서 빼먹고 있다. 이 편지글과 군주에게 바친 20% 세금과 선물을 통해서 그는 정복사업을 허가받았다.

세 번째로 편지가 강조하는 것은 상업적이고 이기적인 자아의 탄생을 보여준다. 당대 정복사업은 벤처 비즈니스였다. 정복자들은 황금에 눈이 뒤집혀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대서양을 건넌고, 금의환향을 하거나 공훈으로 귀족 작위를 얻기를 원했다. 코르테스는 자금을 조달하여 군마와 화약, 그리고 배를 건조해야만 했다. 정복은 군사적 과제 이전에 비즈니스였다. 엄격하게 말해서 전리품이 투자금액보다 훨씬 커야했다. 그는 곳곳에 자신은 벤처 투자로 인해 거지가 되었고, 군주가 그것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앙과 군주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도 집요하게 투자수익에 대해 언급한다. 또 군주가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엄청난 땅과 신민을 얻었으니, 반드시 자신에게 보상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는 나중에 바예 델 오아하카 공작이란 작위와 거대한 영지도 받고, 산티아고 기사단에 가입하는 영예를 얻는다. 그런 점에서 그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였다.

코르테스의 『멕시코 제국 정복기』는 베르날 디아스(Bernal Díaz)의 『누에바 에스파냐 정복의 진정한 역사』와 더불어 멕시코 정복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전이다. 주로 영웅담의 형식을 빌린 정복사의 기술 전통은 19세기 중반의 역사가 W. H. 프레스코트(Prescott)의 『멕시코 정복사』에 의해 집대성되어 역사학계에 하나의 전형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영웅담

스토리에 내장된 파열음, 은폐된 부분을 찾아내어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피정복자의 기록도 발굴하고 재해석하여, 영웅담이 불편하게 숨긴 진실도 드러낸다.

김원중 선생의 이 번역서는 초기 아메리카사를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기록문학의 전범이기도 하다. 역자는 3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방대한 분량의 역서를 꼼꼼하게 번역해냈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 740쪽이나 되는 원문과 역주, 그리고 100페이지가 넘는 역자의 해제는 읽는 사람에게 큰 감흥을 준다. 역자는 앙헬 델가도 고메스(Angel Delgado Gómez)의 스페인어 본(Cartas de Relación)을 기본으로 하고, 팩든(Pagden)의 영역본을 참조하면서, 독자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단락 구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다. ‘산티아고 성인’과 같은 동어반복은 ‘야고보 성인’으로 고쳐야 한다. 해제에 미국 역사학계의 최근 동향(예컨대 Inga Clandinnen의 연구)도 담았으면 좀 더 입체적으로 정복사에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나중에 보완되리라 기대한다. 정복사, 16세기 스페인과 아메리카, 기록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독할 것을 권한다.□